

는 章들과 各論 部分에 속하는 그것들이, 또는 理論 部分에 속하는 章들과 實際에 관한 그것들이 다소 뒤섞여져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다. 물론 이것은 著者 나름대로 어떤 理由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예컨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過程을 그 計劃段階에서 評價段階까지 연속적으로 한 단계씩 차례로 설명해 나가지 않고 評價段階는 꼭 빼어 놓음으로써 體裁 上에 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다는 말이다.

남이 써 놓은 책을 놓고서는 이렇듯 저렇듯 評價를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자신이 책을 써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作業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 作業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全英雨 교수의 勞苦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다. 특히 全교수는 이 땅에서의 스피치學의 개척과 발전을 위해서 외롭(?)게 외길을 걸어가는 분이다. 그가 그토록 애써서 소개하고 발전시키려는 스피치學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 學問인가는 이 책을 읽어 보면 충분히 理解가 될 줄 안다. *

우리말 분류 사전

부록: 역순 사전

남 영 신 엮음

4×6배판 865면. 1987. 10. 한강문화사

서 정 수

(한양대 교수, 국어학)

<우리말 분류 사전>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여느 사전 가운데 하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가 대부분일 것이다. 글썽이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책을 처음 받아들였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전을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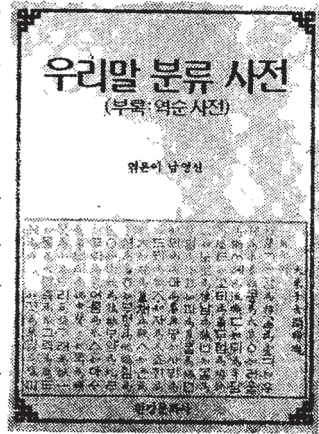
모저모로 살펴보고 나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 사전이야말로 우리의 국어 생활을 기쁘게 하고 살지게 할 수 있는 길잡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값진 “말광”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여느 국어 사전은 어떤 낱말의 형태(곧 발음)는 알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를 경우에 쓰인다. 이를테면, “귀틀집”이라는 낱말의 형태는 주어졌는데 그 뜻을 모를 경우에, “가나다” 순서를 따라 그 올림말을 찾고 그 아래에 풀이된 뜻을 알아 보는 것이 여느 사전이다. 그러나 그런 낱말의 형태를 처음부터 모르면 여느 사전은 아무 쓸모가 없다. 가령, 강원도 산골을 거닐다가 “통나무를 귀맞추어 엮고 흙으로 틈을 메워 지은 집”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그런 집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찾아 보는데는 여느 사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집”의 한 종류거나 하고 짐작은 하면서도 사전을 여기 저기 뒤져 보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낱말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낱말 자체의 형태가 떠오르지 않으니 어느 자음, 어느 모음 줄에서 찾아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 소개하는 <우리말 분류 사전>은 바로 이런 경우에 소용되는 “말찾기” 사전이다. 곧 이 사전에서는 위에 말한 통나무로 엮은 집의 이름(형태)이 “귀틀집”임을 금방 알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사전은 형태가 주어졌을 때 그 뜻을 알아 보는 여느 사전과는 반대로, 뜻이나 용도를 먼저 알았을 경우에 그 이름을 찾아 보는 길잡이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사전은 종래의 보통 사전의 모자란 점을 기워서 국어 생활을 더욱 살지게 하는 값진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전이 그런 생판 모르는 낱말 형태를 어떻게 찾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사전에서는 낱말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분야별로 한데 모아 엮어 놓았다. 이를테면, 건축 관계, 가정 생활, 음식류, 옷가지, 농업, 교통, 산업, 문화, 교육 등의 제 가꿈의 분야별로 항목을 가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낱말을 한 자리에 모아서 배열하였다. 그러므로 알아보고자 하는 말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만 알면 그곳의 적절한 소항목을 펴보아서 낱말 형태를 쉽사리 찾아낼 수가

있다. 가령, “집”과 관련된 낱말이면 “건축” 관계에 속하는 소항목 “집, 집채의 종류”라는 대목에서 그 알맞은 이름을 골라낼 수 있다. 또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옷가지나 김치 종류일 경우에는 자기 “의복류”와 “음식류”의 항목에서 그것을 일러 찾아낼 수가 있다. 이를테면, 전자에서는 ‘숨을 두어 지은 옷’은 “햇옷”이라 하고, 후자에서는 ‘금방 먹도록 무우, 배추를 간장에 절인 김치’는 “벼락 김치”라 한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전은 우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물의 이름을 일러 주는 고마운 국어 선생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이 사전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낱말을 찾아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데, 아주 편리한 길잡이가 된다. 우리는 흔히 순우리말 낱말을 몰라서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를 빌어쓰거나 아니면 기다랗게 풀어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나서는 우리말에는 알맞은 낱말이 많지 않다고 푸념까지 하는 일이 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전은 안성맞춤이다. 이 사전은 자기가 원하는 낱말을 척척 대줄 수 있는 ‘말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 사전은 문필가나 교육자 또는 국어 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특히 작가나 시인 등의 문필가나 언론인에게는 반드시 머리 말에 놓아두어야 할 사전이 된다고 본다. 그들의 창작이나 기사 작성에 가장 요긴한 재료는 무엇보다도 알맞은 낱말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제까지는 그것을 손쉽게 찾아 보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여느 사전을 뒤적여서는 좀처럼 필요한 낱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전은 관련된 분야만 알면 이마 마련된 낱말의 재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전은 우리의 문화 발전에 큰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전은 순우리말의 되살림과 활용 그리고 갈고 닦음에 획기적인 이

바지를 하리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 토박이 말을 찾아서 갈고 뉘음으로써 국어 생활을 순화하고 국어 발달을 촉진하자는 운동이 많이 있었다. 또 그러자면 우리의 일이 담긴 낱말들을 쉽사리 찾아 두루 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낱말들을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찾아 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러던 터에 이런 사전이 나왔으니 국어 사랑에 뜻을 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전을 엮은 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큰 업적을 높이 기리고자 한다. 더구나 본시 국어 학도로 출발하지도 않은 분이 남달리 숭고한 뜻을 가지고 일생을 걸다싶이하면서 이 훌륭한 일을 해낸 데 대해서는 그저 고개가 수그러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에 해낸 일은 우리말 아니 우리 겨레 문화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길이 남기리라 믿는 점을 위안 삼고, 앞으로 더욱 정진해 주기 바랄 뿐이다.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바는 엮은이의 힘이 미칠 수 있다면 “이름씨” 아닌 움직씨, 그림씨들까지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게 해 준다면 더욱 고맙고 빛날 일이라 본다. 또한 사전의 인쇄 활자 면도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믿는다. *

○ 원고 모집 ○

「국어생활」 편집실에서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잘못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국어를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데 필요한 순화 문제, 초·중·고교의 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원고를 널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자 여러분께서 우리 국어에 대하여 평소에 궁금하게 여기셨던 점에 대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란에서 자세하게 응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개하고 싶은 학계 활동, 신간 등에 대한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